



ETRI는 R&D와 연계한 국제표준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개발 분야별 표준화 현황분석을 통해 표준기술을 발굴하고 중장기 표준화 로드맵 및 표준화 전략 수립 기능을 강화하여 시장지향형 표준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원내 표준전문가와 기술개발자와의 협력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표준전문가 주도로 수시 발생하는 표준화 이슈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기술개발 부서와 표준 전문부서 간의 협력연구를 통한 기술개발 성과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R&D와 연계한 ETRI의 국제표준기술 확보 및 표준화 기구 활동결과로서(2006년 12월 기준), 1999년 이후 ITU-T, IETF 등 표준화기구에 2,134건의 국제기고서 채택, MPEG, DMB, WiBro 등 국제표준특허 91건 확보, IPv6 관련 국내 최초 IETF 표준 기술 채택 등 국제표준기술 90건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국제표준기구에 의장단을 포함한 87명의 표준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WTO 체제 출범, FTA 협정체결로 무관세화 등 경제블록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표준은 세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술을 국제표준화하기 위해서는 미래사회 및 사용자의 요구를 기반으로 정보통신시장을 주도할 미래 핵심 기술을 조기에 발굴하고 표준화 추진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개발 성과물의 국제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핵심기술의 본격 개발 이전부터 국제표준화를 목표로 한 활동이 계획되어야 한다. 핵심 원천기술의 개발과 지식재산권의 확보, 그리고 국내외 전략적 제휴관계 형성을 통한 국제표준화 계획이 상호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핵심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화의 성공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표준전문가의 육성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TA

